

3/29(화) 에스라 묵상 11

에스라 6:13-2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6장은 다리오왕이 조서를 받고 그 내용들을 확인 하는 작업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허락하는 내용 그리고, 성전 건축의 완공과 봉헌식을 끝으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마친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 봉헌

새 성전은 바사 왕 다리오 6년 아달월(12월) 3일에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15절, “**다리오 왕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지 약 70년 그리고 스룹바벨을 비롯한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제 2 성전 재건을 착수한 지 약 20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연대 (B.C.)	관련 사건
고레스	559-530	1차 포로 귀환. 성전 건축이 시작됨(B.C. 536년)
캄비세스 2세	530-522	성전건축이 방해꾼에 의해 중지됨. 그리하여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중단됨.
스메르디스	522	
다리오	522-486	통치 제 2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됨. 통치 제 6년에 성전이 완성됨(B.C. 515-6년경)

<제 2성전 재건의 연대기>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16-18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백 마리와 숫양 이백 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열 두 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제 새로운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은 본문의 말씀대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마련해 주신 제사 제도를 통해 그 관계가 교통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 낙성식 때를 기억하게 하는 제 2성전의 봉헌식을 통해 이스라엘은 재 건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성전 재건과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처음으로 다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19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22절상,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 유월절은 남유다의 요시아 왕 때에 드렸던 유월절 이후에 가장 성대하게 치뤄진 절기였습니다(대하 35:18-19,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는 지 열여덟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유월절의 특징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더러운 습관을 버리고 이제 구별하여서 이스라엘에 속하여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21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는 장차 유월절의 어린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엡 2:11-13,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성전 건물의 재건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물질 또는 사교가 아닙니다. 물론, 물질과 친목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에 있어 먼저는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적인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배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매일이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중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또 개인적으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회복과 함께 우리의 일상의 생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와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재건되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와 가정도 다시금 올바른 예배와 예배의 삶을 통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사역자들과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카자흐스탄 이드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